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안보법제 물갈이는 중국에 위협 그 자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일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연동되는 중국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일단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심각하게 다가왔다. 안보법안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는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으나, 이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군과 동맹관계인 까닭에 비상사태 때 그런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북한에 대한 자위대의 진출 여부는 아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국 영토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이번 안보법제 개정을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볼 때 한국은 거대한 딜레마를 안게 됐다.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권전략,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실제로 한·미·일 동맹의 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 경제

개 관

2015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 내외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은 성장률이 소폭 높아졌으며, 일본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개인소비 및 주택투자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유로지역은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1% 중반대의 성장률을 회복했다. 일본 경제는 소비 회복, 기업수익성 개선 등으로 0%대 중반의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신흥국은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중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잉설비 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6.9% 성장에 머물렀다.

인도를 제외한 여타 BRICs국가들의 성장률도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내수 위축,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2014년에 비해 큰 폭 하락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베트남의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4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됐다.

고용사정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에서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2014년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낮아진 반면 신흥국에서는 통화기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상반기 중 제기됐던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및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 들어 일단락됐으나 이후 중국의 감속 성장,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지속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장기금리는 중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의 경우 상반기 중 상승세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으며, 신흥국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ECB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나타냈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가 축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미국의 원유시추설비 가동기수 감소 등으로 원유의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초 40달러대에서 상반기 중 60달러 내외수준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 전망,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확산, OPEC의 감산 합의 실패 및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유가에 대한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연말에는 3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타 원자재가격도 곡물 및 비철금속 가격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 경제 성장

2015년 미국 경제는 개인소비와 주택투자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기상여건 악화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등의 영향으로 0.6% 성장에 머물렀으나, 2분기 들어서는 전분기의 일시적인 하락에 따른 저지효과,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주택투자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3.9%로 확대됐다.

3분기의 경우 세일오일관련 구조물투자 부진, 재고조정 등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했으나 개인소비지출이 3%대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개선세를 이어갔으며, 4분기에는 개인소비지출 및 주택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문에서의 부진 등으로 민간투자가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1.8%)한 가운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부진함에 따라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지역은 ECB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2014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졌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재정긴축 완화에 따른 정부지출 증

가 등으로 2011년 1분기(0.9%) 이후 가장 높은 0.5%를 기록했으나 2분기 이후에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 및 스페인이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도 내수를 중심으로 2014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졌다. 다만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 지원 등에 따른 긴축정책 추진 등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일본 경제는 신흥국 경기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했으나 기업수익성 개선 및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4년(0.0%)에 비해 소폭 상승한 0.4%를 기록해 완만하나 회복세를 나타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주택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0.3%) 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4분기에는 신흥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성장률이 재차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중국 경제는 제조업 과잉 설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6.9% 성장에 그쳤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된 것은 대내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했던 데 주로 기인한다.

중국을 제외한 BRICs국가들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중국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외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2014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별로는 브라질은 긴축적 통화·재정 정책, 정치 불안 등으로 -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로 인한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2014년(0.7%)보다 크게 하락한 -3%대 중후반의 성장에 머물렀다. 반면 인도는 완화된 통화정책 등으로 내수가 확대되면서 7%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의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2014년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2014년(5.0%)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말레이시아는 수출 부진,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필리핀은 2분기 이후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내수가 증가했으나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은 2014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반면 태국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개선이 지속되면서 2014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베트남도 휴대폰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6%대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세계 ¹⁾	3.4	3.3	3.4	3.1
미 국	2.2	1.5	2.4	2.4
일 본	1.7	1.4	0.0	0.4
유로지역	-0.9	-0.3	0.9	1.5 ¹⁾
중 국	7.7	7.7	7.3	6.9

주 : 1) IMF 발표치(2016년 1월)
 자료 : IMF,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고용

2015년 미국의 고용사정은 2014년에 이어 개선추세를 지속했다. 2015년 중 월평균 비농업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2만 명으로 2014년(월평균 25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실업률은 12월에 5.0%까지 하락해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한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완만한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 및 유가하락 영향으로 기업수익성도 높아지면서 고용사정은 개선세를 유지했다. 2015년 중 평균 실업률은 3.4%로 2014년(3.6%)보다 낮아졌으며,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배율은 상승세를 유지해 2014년(1.09배)보다 높은 1.20배를 기록했다.

반면 명목임금은 2014년 대비 0.1% 상승해 2014년(0.4%)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0.8%에 머물렀다.

유로지역의 고용사정을 보면 실업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꾸준히 하락해 4분기에는 재정위기 이후 가장 낮은 10.5%(연간 10.9%)를 기록했다. 국가별 실업률(4분기 기준)을 보면 스페인(21.0%), 포르투갈(12.2%) 등이 역대 평균치(10.5%)를 상회한 반면 독일(4.5%), 네덜란드(6.7%), 프랑스(10.2%) 등은 역대 평균치를 하회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중국은 실업률이 4.1%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브라질과 러시아는 실업률이 각각 2014년의 4.8%, 5.2%에서 6.8%, 5.6%로 높아졌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 국	8.1	7.4	6.2	5.3
일 본	4.3	4.0	3.6	3.4
유로지역	11.4	12.0	11.6	10.9
중 국	4.1	4.1	4.1	4.1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EU 통계청,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 물가

2015년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2014년(1.6%)보다 큰 폭 낮아진 0.1%에 머물렀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1.7%)과 비슷한 1.8%를 기록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ECB의 물가목표(2%)를 크게 하회하는

0.0%에 그쳤으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과 동일한 0.8%를 기록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 시행)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4월 이후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해 연간으로 0.8% 상승에 그쳤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연간 1.0% 상승에 머물렀다. 한편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5%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연간 목표치(3%)를 하회했으며 2014년(2.0%)에 비해 상승 폭도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식품(2.3%), 의복(2.7%) 등의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가정용품(1.0%), 주거(0.7%) 등은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브라질은 공공요금 인상,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교통비 및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연초의 7%대에서 연말에는 10%대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15% 내외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다가 연말에는 식료품가격을 중심으로 12%대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다.

한편 원유수입국인 인도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연중 4% 내외의 안정된 물가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연말에 물가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연말에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및 식료품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4년과 같은 6.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말레이시아는 물품 및 서비스세(GST) 도입(4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물가오름세가 확대됐으나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은 식료품가격 안정과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국	2.1	1.5	1.6	0.1
일본	0.0	0.4	2.7	0.8
유로지역	2.5	1.4	0.4	0.0
중국	2.6	2.6	2.0	1.4

자료: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세계 교역 및 경상수지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선진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이 큰 폭 하락하면서 2014년보다 낮아진 2.6% 증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달러화 강세 등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은 확대됐다.

유로지역은 경기회복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전자제품 등에서 개선세를 보였으나 신흥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2.7% 증가에 그쳤으며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0.2% 증가에 그쳐 2014년(7.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중국 수출은 연간 2조2천748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2

조 달러를 상회했으나 2014년(2조3천423억 달러)에 비해 2.9% 감소했다.

경상수지도 선진국이 개선세를 보인 반면 신흥국은 적자로 돌아서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014년보다 확대됐다.

유로지역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돼 3천221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2015년 중 독일의 흑자폭이 2014년에 비해 370억 유로 확대됐으며, 프랑스는 동 기간 중 적자폭이 169억 유로 축소됐다.

일본은 상품 및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감소하고 본원소득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면서 흑자 규모가 큰 폭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전환 정책 등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14년보다 확대됐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 교역 신장률(%) ¹⁾	2.9	3.3	3.4	2.6
선진국수입물량증가율(%) ¹⁾	1.1	2.0	3.4	4.0
신흥국수입물량증가율(%) ¹⁾	5.9	5.2	3.7	0.4
경 상 수 지				
선진국(10억 달러) ²⁾	-9	193	190	230
신흥국(10억 달러) ²⁾	360	181	158	-24
미국(10억 달러)	-450	-377	-390	-461 ²⁾
일본(100억 엔)	476	393	265	1,664
유로지역(억 유로)	1,204	1,926	2,456	3,140
중국(10억 달러)	215	148	220	293

주: 1) IMF 발표치(2012~13년은 2015년 10월, 2014~15년은 2016년 1월 기준)

2) IMF 발표치(2015년 10월)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종 발표치

■ 국제금리 및 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개시한 데 반해 ECB는 양적완화를 확대하고, 일본은행은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는 등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뚜렷해진 데다 상반기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및 유로존 탈퇴 리스크, 하반기 중국의 감속 성장에 따른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연중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주요국의 단기금리(국채 3개월물 기준)는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12월 금리인상이 압박함에 따라 4분기 이후 상승했다.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ECB의 2차례 양적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했으며 일본의 단기금리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의 지속으로 0% 내외의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국제금리(기말 기준)

(연 %, b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단기	미국 ¹⁾	0.07	0.03	0.02	0.02	0.04	0.02	0.01	-0.02	0.16
	일본 ¹⁾	0.05	0.03	0.03	0.00	0.00	0.01	0.00	-0.02	-0.04
	유로지역 ¹⁾	0.15	0.19	0.02	-0.03	-0.05	-0.16	-0.18	-0.20	-0.45
	유로달러 ²⁾	0.25	0.23	0.23	0.24	0.26	0.27	0.28	0.33	0.61
	유로엔 ³⁾	0.15	0.14	0.13	0.12	0.11	0.10	0.10	0.08	0.08
장기	미국 ⁴⁾	3.03	2.72	2.53	2.49	2.17	1.92	2.35	2.04	2.27
	일본 ⁴⁾	0.74	0.64	0.56	0.53	0.32	0.41	0.47	0.36	0.27
	유로지역 ⁴⁾	1.93	1.57	1.25	0.95	0.54	0.21	0.80	0.59	0.63
회사채 스프레드 ⁵⁾		246.2	229.8	221.5	245.4	252.9	255.7	281.7	320.3	315.1

주 : 1) 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 기준 2) 3개월 만기 달러화 LIBOR 기준 3) 3개월 만기 엔화 LIBOR 기준
4) 10년 만기 국채 기준 5) 미국 10년 만기 회사채(Baa) 기준

자료 : Bloomberg, J.P. Morgan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우려,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상반기 중 미국경제의 성장세 확대, 국제유가의 반등 등으로 상승했다가 3분기 들어 중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일시 하락했으나, 10월 이후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로 재차 반등하면서 연간으로는 2014년 말 2.17%에서 2015년 말 2.27%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유로지역의 장기금리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로 상승했다가 7월 이후 국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반락하였으나, 연간으로는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2014년 말 0.54%에서 2015년 말 0.63%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의 장기금리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 등으로 2014년 말 0.32%에서 2015년 말 0.27%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회사채 스프레드(Baa 기준)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한계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14년 말 252.9에서 2015년 말 315.1로 62.2bp 상승했다.

글로벌 주가는 상반기 ECB 및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유로지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하반기 이후 중국 관련 리스크의 부각,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동반 하락했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주요국 및 신흥국 통화에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미국 주가(Dow Jones지수 기준)는 노동시장 개선 및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가 급락,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로 2014년 말 대비 2.2% 하락했다.

일본 주가(Nikkei지수 기준)는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상반기 급등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크게 반락해 2014년 말 대비 9.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유로지역 주가(EURO STOXX지수 기준)는 ECB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연초 급등했다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연간 상승 폭은 2014년 말 대비 3.8%에 머물렀다.

한편 중국, 인도 및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상반기에 일

주가 및 환율¹⁾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주가	Dow Jones	16,577	17,823	17,776	17,620	16,285	17,425
	Nasdaq	4,177	4,736	4,901	4,987	4,620	5,007
	Euro Stoxx	3,109	3,146	3,697	3,424	3,101	3,268
	Nikkei	16,291	17,451	19,207	20,236	17,388	19,034
환율	엔/달러	105.36	119.79	120.2	122.23	120.02	120.4
	달러/유로	1.3745	1.2097	1.073	1.1135	1.1176	1.086
	달러/파운드	1.6556	1.5573	1.4816	1.5705	1.5127	1.4738

주 : 1) 기말 기준, 엔화 환율은 도쿄시장, 나머지 통화는 로이터고시가격 기준
자료 : Bloomberg, Reuters

시 상승했던 신흥국 주가(신흥국 MSCI 주가지수 기준)도 그리스 관련 리스크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 및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외국인주식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2014년 말 대비 17.0% 급락했다.

미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양적완화정책 시행(3월 1일) 및 추가 완화조치(12월 3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강세를 보여 2014년 말 대비 11.4% 절상됐다. 다만 12월 들어 ECB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시장의 실망 등으로 강세기조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었다.

엔화에 대해서도 미 연준과 일본은행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강세를 나타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 증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 축소 등으로 절상 폭은 2014년 말 대비 0.5%에 그쳤다.

한편 신흥국 통화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우려,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통화가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 국제 원자재 가격

2015년 1월중 40달러대 중반에 머물던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미국의 원유시추설비 가동기수 감소 등에 따라 원유의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반기 중 60달러 내외 수준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7월 이후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한 원유생산량 증가 전망 및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2월 들어서는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및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가속되면서 2015년 말에는 배럴당 32.1달러까지 낮아졌다.

기타 원자재가격의 경우 곡물 및 비철금속 가격 모두 하락했다. 2015년 말 현재 IMF 기타 원자재가격지수는 2014년 말 대비 19.1%,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6.1% 각각 낮아졌다.

곡물가격은 2014년에 이어 생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14년 말 대비 15.4% 하락(S&P GSCI 농산물지수 기준)했다. 연초의 기상여건 호조로 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들어 엘니뇨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호주 이외 지역에서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곡물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8월 이후로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곡물별로는 소맥가격은 2014년 말 대비 20.3%, 옥수수가격은 9.6%, 대두가격은 14.5% 각각 하락했다.

비철금속가격(LMEX비철금속지수 기준)은 2014년 말 대비 27.3% 하락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주요 광산의 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등으로 4~5월 중 일시 상승했으나, 6월 이후 그리스 채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반기에도 9월 들어 주요 공급업체들의 공급축소 발표 및 시장점유율 경쟁 등으로 등락을 반복했으나 11월 이후 중국과 유럽의 수요둔화 우려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구리가격은 2014년 말 대비 26.1%, 알루미늄가격은 17.8%, 니켈가격은 41.8% 각각 하락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107.9	53.9	52.6	60.9	44.0	32.1
동(달러/톤)	7375.8	6368.0	6064.5	5754.8	5176.5	4705.8
알루미늄(달러/톤)	1754.8	1825.0	1781.3	1651.0	1566.8	1500.3
소맥 ²⁾ (센트/부셸)	605.3	589.8	511.8	614.8	512.8	470.0
옥수수 ²⁾ (센트/부셸)	422.0	397.0	376.3	414.0	387.8	358.8
금(달러/온스)	1205.7	1184.9	1183.7	1172.4	1115.1	1061.4

주: 1) 기말 기준, 현물가격 2) 최근월 선물 가격
자료: Bloomberg

지역별 경제

■ 미국 경제

2015년 미국 경제는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돼 2014년(2.4%)과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미 서부 항만파업,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등으로 GDP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이 전분기에 비해 큰 폭 하락한 0.6%에 머물렀으나, 2분기 중에는 전분기의 일시적인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주택투자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3.9%로 확대됐다.

3분기 중에도 세일요일 관련 구조물투자 부진, 재고조정 등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했으나 개인소비지출이 3%대의 증가세를 이어간 데 힘입어 2.0%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다만 4분기에는 개인소비지출 및 주택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 신흥국의 회복 모멘텀 약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된 가운데 민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GDP성장률이 0.7%에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 증대,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014년(2.7%)에 비해 소폭 확대된 3.1%를 기록했다.

민간총투자의 경우 에너지관련 구조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증가율이 2014년(5.4%)에 비해 하락한 4.8%를 나타냈다. 주택투자는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8.7%를 기록해 2014년(1.8%)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한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014년(-0.18%p)보다 더 큰 폭의 마이너스(-0.66%p)를 기록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 등이 부진함에 따라 증가율이 2014년(2.5%)보다 하락한 1.9%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공급관리자협회(SM) 지수도 4분기 중 기준치(50)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¹⁾	1.5	2.4	2.4	0.6 (2.9)	3.9 (2.7)	2.0 (2.1)	0.7 (1.8)
개인소비지출	1.7	2.7	3.1	1.8	3.6	3.0	2.2
민간총투자	4.5	5.4	4.8	8.6	5.0	-0.7	-2.5
(기업고정투자)	4.2	5.3	4.0	3.3	5.2	3.7	0.2
(비주거용투자) ²⁾	3.0	6.2	2.9	1.6	4.1	2.6	-1.8
- 구조물	1.6	8.1	-1.5	-7.4	6.2	-7.2	-5.3
- 설비	3.2	5.8	3.1	2.3	0.3	9.9	-2.5
- 지적재산권	3.8	5.2	5.8	7.4	8.3	-0.8	1.6
(주택투자)	9.5	1.8	8.7	10.1	9.3	8.2	8.1
(재고증감) ³⁾	0.06	0.05	0.16	0.87	0.02	-0.71	-0.45
순수출 ³⁾	0.20	-0.18	-0.66	-1.92	0.18	-0.26	-0.47
(수출)	2.8	3.4	1.1	-6.0	5.1	0.7	-2.5
(수입)	1.1	3.8	5.0	7.1	3.0	2.3	1.1
정부지출	-2.9	-0.6	0.8	-0.1	2.6	1.8	0.7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2) 설비, 소프트웨어 및 구조물 포함
3) 분기는 연간 환산치 역 달러, 2005년 연쇄가격 기준 4)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구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제조업 생산 ¹⁾	2.5	1.9	-0.7	1.5	3.0	0.0	0.3	-0.2	-0.2
제조업 가동률	75.3	76.1	75.9	75.9	76.3	76.1	76.3	76.0	75.8
제조업 ISM지수	55.6	51.3	53.2	52.6	51.0	48.6	49.4	48.4	48.0
개인소비지출(실질) ¹⁾	2.7	3.1	1.8	3.6	3.0	2.2	0.0	0.4	0.1
소비자 신뢰지수 ²⁾	86.9	98.0	101.4	96.2	98.3	96.0	99.1	92.6	96.3
소매판매	3.9	2.1	-1.1	1.6	1.1	0.2	0.0	0.3	0.2
(자동차 제외)	3.1	0.9	-1.4	1.3	0.9	0.0	0.1	0.3	0.1
비방위자본재수주 ³⁾	6.3	-3.8	-2.2	-1.4	1.9	-1.7	0.6	-0.9	-4.3
주택판매 ⁴⁾ (신축)	2.3	14.1	21.8	16.9	11.2	7.1	2.1	9.4	9.9
" (기존)	-3.0	6.3	6.3	8.4	8.3	2.4	3.1	-3.8	7.7
주택가격 ⁴⁾ (신축)	7.0	3.8	7.2	2.6	8.4	-2.4	-0.9	-1.9	-4.3
" (기존)	5.6	6.4	6.5	7.6	5.1	6.5	5.6	6.2	7.6
주택착공호수 ⁵⁾	100.1	110.6	97.8	115.8	115.8	113.0	107.1	117.6	114.3
실업률(%)	6.2	5.3	5.6	5.4	5.2	5.0	5.0	5.0	5.0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⁶⁾	3015	2735	570	752	576	837	295	280	262
근원PCE 가격지수 ⁷⁾	1.5	1.3	1.3	1.3	1.3	1.4	1.3	1.4	1.4
소비자 물가 ⁷⁾	1.6	0.1	-0.1	0.0	0.1	0.5	0.2	0.5	0.7
	(1.7)	(1.8)	(1.7)	(1.8)	(1.8)	(2.0)	(1.9)	(2.0)	(2.1)
생산자 물가 ⁷⁾	1.6	-0.9	-0.5	-0.8	-0.9	-1.2	-1.6	-1.1	-1.0

주 : 1) 분기는 연율 2) Conference Board(1985=100) 3) 항공기 제외 4) 전년 동기 대비 5) 연간 환산치, 만 호
 6) 증가분 천 명 7) 전년 동기 대비, () 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 미국 상무부, 노동부, 연준, Conference Board, 부동산중개인협회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 상승추세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주택판매의 경우 신축주택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기존주택의 거래량도 2014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주택가격은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 모두 각각 3.8% 및 6.4% 상승해 2014년(각각 7.0% 및 5.6%)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편 주택착공호수의 경우 주택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014년(100만 호)보다 늘어난 111만 호를 기록했다.

고용사정은 2014년에 이어 개선추세가 지속됐다. 2015년 중 월평균 비농업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3만 명으로 2014년(월평균 25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014년 1월 5.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12월에 5.0%까지 하락했다. 고용률(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 또한 2015년 중 59.3%로 2014년(59.0%)보다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0%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9월 이후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 품목 제외) 상승률의 경우 오름세가 지속돼 11월 중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20%를 기록했다.

다만 연준이 물가상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1월 이후 1.3% 내외 수준에 머물며 연준의 목표치(2.0%)를 하회했다.

대외거래(국제수지 기준)를 보면, 2014년 3·4분기 중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7%를 기록하는 등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

되면서 상품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정부재정은 2015년 중 재정수입 3조2천487억 달러, 재정지출 3조6천874억 달러로 4천3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4년(4천846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4년(2.8%)에 비해 낮아진 2.5%를 기록했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6%를 나타내 2014년(74.4%)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한편 미 연준은 노동시장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reasonably confident)에 근거해 12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0.50%로 25bp 인상했다.

■ 유로지역 경제

2015년 유로지역 경제는 ECB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0.9%)에 비해 다소 높아진 1.5%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투자 및 민간소비 확대, 재정긴축 완화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1분기(0.9%) 이후 가장 높은 0.5%를 기록했다. 2분기 이후에도 ECB의 추가 양적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따른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은 소폭 하락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¹⁾ (전기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0.3	0.9	0.3 [0.8]	0.4 [0.9]	1.5	0.5 [1.3]	0.4 [1.6]	0.3 [1.6]	0.3 [1.5]
민간소비	-0.7	0.8	0.4	0.5	1.7	0.5	0.3	0.4	-
정부소비	0.2	0.9	0.3	0.2	1.4	0.5	0.3	0.6	-
고정투자	-2.6	1.3	0.4	0.6	2.3	1.5	0.1	0.0	-
수출	2.1	4.1	1.6	1.2	5.1	1.3	1.6	0.2	-
수입	1.3	4.5	1.5	1.2	5.7	1.9	0.9	0.9	-

주: 1) 계절변동조정 후,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연간 부문별 수치는 EU 집행위원회의 전망치
 자료: EU 통계청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독일 및 스페인이 노동시장 및 금융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건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도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 지원 등에 따른 긴축정책 추진 등으로 부진했다.

유로지역 주요국 경제성장률¹⁾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독일	[28.8]	0.3	1.6 (1.2)	0.2 (1.6)	0.6	1.7	0.4 (1.3)	0.4 (1.6)	0.3 (2.1)
프랑스	[21.1]	0.7	0.2 (0.1)	0.3 (0.2)	0.1	1.2	0.7 (1.1)	0 (1.1)	0.3 (1.3)
이탈리아	[16.0]	-2.3	-0.4 (-0.4)	-0.1 (-0.6)	-0.1	0.7	0.4 (0.2)	0.3 (0.9)	0.2 (0.9)

주: 1) 계절변동조정 후,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2)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년 기준)
 자료: EU 통계청

2015년 유로지역 경상수지는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돼 3천221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2015년 중 독일의 흑자폭이 2014년에 비해 370억 유로가 확대됐으며, 프랑스는 동 기간 중 적자폭이 169억 유로 축소됐다.

유로지역 주요국 경상수지¹⁾ (억 유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유로 지역	경상수지	1,939	2,409	957	3,107	544	664	907	992
	상품수지	2,111	2,503	799	3,221	657	853	821	890
	서비스수지	685	710	141	624	79	199	197	150
	소득수지	564	598	335	624	305	-92	123	288
	경상이전수지	-1,421	-1,402	-318	-1,361	-497	-296	-234	-335
독일	경상수지	1,824	2,121	650	2,491	568	569	625	729
프랑스	경상수지	-179	-196	-9	-27	-20	19	10	-36

주: 1) 유로지역 및 독일은 계절변동조정 전, 프랑스는 계절변동조정 후
 자료: 유럽중앙은행, 독일중앙은행, 프랑스중앙은행

2015년 유로지역의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꾸준히 하락해 4분기에는 재정위기 이후 가장 낮은 10.5%를 기록했다. 국가별 실업률(2015년 4분기 기준)을 보면 스페인(21.0%), 포르투갈(12.2%) 등이 역대 평균치(10.5%)를 상회한 반면 독일(4.5%), 네덜란드(6.7%), 프랑스(10.2%) 등은 역대 평균치를 하회했다.

유로지역 주요국 실업률¹⁾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유로 지역	실업률(%)	12.0	11.6	11.5	10.9	11.2	11.0	10.7	10.5
	실업자수(만 명)	1,904	1,863	1,845	1,743	1,797	1,771	1,724	1,684
독일	실업률(%)	5.2	5.0	4.9	4.6	4.8	4.7	4.6	4.5
프랑스	실업률(%)	10.3	10.3	10.5	10.4	10.4	10.4	10.5	10.2

주: 1) 분기 및 연간 자료는 월별 자료의 단순평균
 자료: EU 통계청

2015년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HICP :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상승률은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ECB의 물가목표(2%)를 크게 하회하는 0.0%에 그쳤다. 다만 4분기에는 서비스 및 공산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2014년과 동일한 0.8%를 기록했다.

유로지역 주요국 소비자물가¹⁾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유로지역	1.4	0.4	0.2	0.0	-0.3	0.2	0.1	0.2
근원인플레이션	1.1	0.8	0.7	0.8	0.7	0.8	0.9	1.0
독일	1.6	0.8	0.4	0.1	-0.1	0.4	0.0	0.2
프랑스	1.0	0.6	0.3	0.1	-0.2	0.3	0.1	0.2

주: 1) HICP 기준
 자료: EU 통계청

2015년 유로지역의 주요 경기심리지표는 2014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체감지수(ESI)의 경우 2014년 대비 2.7p 상승한 104.2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상회했으며 제조업 PMI도 52.2로 기준치(50)를 상회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의 Ifo 경기지수가 108.1로 2014년 대비 0.1p 상승했으며, 프랑스의 INSEE지수도 동 기간 중 3p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

유로지역 주요국 경기심리지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유로 지역	경기체감지수	93.5	101.5	104.2	102.6	103.7	104.5	106.3
	제조업PMI	49.6	51.8	52.2	51.4	52.2	52.2	52.8
독일	Ifo 경기지수	106.6	108.0	108.1	107.2	108.3	108.4	108.6
프랑스	INSEE지수	94	99	102	100	102	103	102

자료: EU 통계청, 독일 Ifo, 프랑스 통계청

■ 일본 경제

2015년 일본경제는 신흥국 경기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했으나, 기업수익성 개선 및 설비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014년(0.0%)에 비해 소폭 상승한 0.4%를 기록하는 등 완만하나 회복세를 나타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주택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4년 4분기(0.6%)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0.3%) 성장을 기록했으나 3분기 들어 민간소비, 주택 및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흥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4분기 성장률은 2분기 만에 마이너스(-0.4%)로 전환됐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유가 하락 지속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악화 및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등으로 1.2% 감소해 2014년(-0.9%)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투자를 보면 주택투자는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4분기에 마이너스(-1.2%)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중으로는 2.6% 감소해 2014년(-5.3%)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반면 설비투자는 엔화 약세 등에 따른 기업수익성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년 중 1.3% 증가해 2014년(3.1%)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은 엔화약세에 힘입어 전자 및 자동차 품목 등에서 개선세를 보였으나 신흥국 경기 부진 등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쳐 2014년(8.3%)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국가별로는 미국(11.5%), 영국(9.7%)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독일(-2.6%), 한국(-2.3%), 중국(-1.1%)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가 11.2% 감소함에 따라 0.2% 증가에 그쳐 2014년(7.2%)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국가별로는 대만(7.5%), 미국(6.8%) 등에 대한 수입이 증가한 반면 호주(-17.2%), 한국(-8.1%), 독일(-3.8%) 등에서의 수입은 감소했다.

대외거래 동향을 보면 무역수지(통관기준)는 2조8천353억 엔 적자를 기록해 201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의 영향으로 2014년(12조8천161억 엔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감소하고 본원소득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면서 흑자규모가 2014년(2조6천458억 엔)보다 큰 폭 증가한 16조6천415억 엔을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부문별로는 상품수지의 경우 석유 및 LNG 등 연료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2014년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수지 또한 여행수지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지적재산권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본원소득수지는 채권 이자, 직접투자 수익을 중심으로 4년째 흑자규모가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재고 누적이 이어지고 신흥국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2.1%)에 비해 크게 하락해 마이너스 증가율(-0.9%)을 기록했다. 철강·일반기계·운송기기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자본재생산 또한 2014년 대비 0.8% 감소해 2014년(9.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용은 기업들이 엔저와 유가하락 등으로 양호한 기업실적을 보이면서 개선세를 유지했다. 2015년 중 평균 실업률은 3.4% 수준으로 2014년(3.6%)보다 0.2%p 낮아졌다.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2015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2014년(1.09배)보다 높은 1.20배를 기록했다.

반면 명목임금은 0.1% 상승해 2014년(0.4%)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고, 실질임금은 0.8% 하락해 2012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소비자물가는 4월 이후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 시행)효과가 소멸되면서 크게 하락한 이후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0.8% 상승에 그쳤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4월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1.0% 상승했다.

한편, 일본은행이 목표로 설정한 신선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5% 상승에 그쳤다.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주가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주식매입량 증대, 엔화약세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17,451) 대비 9.1% 상승한 19,034를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은 120.42를 기록해 2014년 대비 0.5%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6월 중에는 125엔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신흥국 경기 부진과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일본국채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120엔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12월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asing: QQE)를 보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은행은 기존 본원통화 증가 목표(연간 80조 엔)와 장기국채매입 규모(연간 80조 엔, 잔액기준) 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를 종전 7~10년에서 7~12년으로 연장하고, 2016년 4월부터 설비·인재 투자를 적극적으로

일본 GDP 성장률

(전기 대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¹⁾	1.7	1.4	0.0	0.6 (-1.0)	0.4	1.0 (-1.0)	-0.3	0.3	-0.4	-0.5
민간소비	2.3	1.7	-0.9	0.6	-1.2	0.2	-0.8	0.4	-0.8	
주택투자	3.2	8.4	-5.3	-0.4	-2.6	2.1	2.3	1.6	-1.2	
설비투자	3.7	-0.5	3.1	0.0	1.3	2.8	-1.2	0.7	1.4	
공공투자	2.7	8.0	0.4	0.7	-2.2	-2.9	3.3	-2.0	-2.7	
수출	-0.2	1.2	8.3	3.2	2.7	2.1	-4.6	2.6	-0.9	
수입	5.3	3.1	7.2	1.1	0.2	1.9	-2.6	1.3	-1.4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상수지(십억엔)	4,764	3,932	2,646	16,642
무역수지(십억엔) ¹⁾	-6,941	-11,468	-12,816	-2,835
수출(십억엔) ¹⁾	63,748	69,774	73,093	75,632
수입(십억엔) ¹⁾	70,689	81,243	85,909	78,468
광공업생산(전년대비, %)	0.6	-0.8	2.1	-0.9
실업률(%)	4.3	4.0	3.6	3.4
유효구인배율(배)	0.8	0.93	1.09	1.2
명목임금(전년대비, %)	-0.8	-0.4	0.4	0.1
실질임금(전년대비, %)	-0.8	-1.0	-2.9	-0.8
소비자물가상승률(%)	0.0	0.4	2.7	0.8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²⁾ (%)	-0.6	-0.2	1.8	1.0
기업물가상승률(%)	-0.9	1.3	3.2	-2.3
닛케이주가(엔)	10,395	16,291	17,451	19,034
엔/달러 환율 ³⁾	86.32	105.37	119.8	120.42

주: 1) 통관 기준 2) 기말 기준 3)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실시하는 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한 ETF를 연간 3천억 엔 추가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 이외에 주택대출채권 등을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REIT의 개별종목별 매입한도를 기존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9월 저출산·고령화에 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규모를 유지하면서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일억총활약사회(一億總活躍社會)를 실현하기 위해 육아 지원, 사회보장, 강한 경제를 새로운 3개의 화살로 제시했다.

신 3개의 화살은 2014년 현재 1.4인 출산율을 2020년 1.8까지 높이고(육아지원), 10만 명 내외인 간호 퇴직(고령 부모의 간호를 위해 중년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을 제로로 만들어(사회보장) 490조 엔인 명목GDP를 2020년까지 600조 엔으로 늘리는(강한 경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중국 경제

2015년 중국 경제는 제조업 과잉 설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6.9% 성장에 그치며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지속된 것은 대내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데 주로 기인한다.

부문별로 보면 고정투자가 2014년(15.7%)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부(14.6%)에 비해 서부(9.0%)와 동부(8.3%) 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연간 6.1% 증가해 2014년(8.3%)에 비해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비철금속(11.3%) 및 화공품(9.5%)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철강(5.4%) 및 전력(0.5%) 등은 상대

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증가 및 인터넷쇼핑 등 신형 소비의 빠른 성장 등으로 2014년(12.0%)과 비슷한 1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통신장비(29.3%), 건설자재(18.7%)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석유제품(-6.6%), 자동차(5.3%)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온라인 소매판매가 2014년 대비 31.6% 증가한 3조2천424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7.7	7.3	7.2	6.9	7.0	7.0	6.9	6.8
고정투자 ¹⁾	19.6	15.7	15.7	10.0	13.5	11.4	10.3	10.0
산업생산 ²⁾	9.7	8.3	7.6	6.1	6.2	6.3	5.9	5.9
소매 판매 ²⁾	13.1	12.0	11.7	10.7	10.6	10.2	10.7	11.1
수출 ³⁾	7.8	6.0	8.6	-2.9	4.5	-2.9	-6.3	-5.1
수입 ³⁾	7.2	0.5	-1.9	-14.2	-17.5	-13.5	-14.4	-11.5
무역수지 ³⁾	2,590	3,831	1,504	5,932	1,222	1,355	1,610	1,745
소비자물가 ²⁾	2.6	2.0	1.5	1.4	1.2	1.4	1.7	1.5
생산자물가 ²⁾	-1.9	-1.9	-2.8	-5.2	-4.6	-4.7	-5.7	-5.9
총통화(M2) ⁴⁾	13.6	12.2	12.2	13.3	11.6	11.8	13.1	13.3

주: 1) 누계 기준, 도시 지역 2) 분기 수치는 해당 월 평균
 3) 억 달러 4) 말잔 기준
 자료: CEIC,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

수출은 연간 2조2천748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2조 달러를 상회했으나 2014년(2조3천423억 달러)에 비해 2.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도(7.4%), 아세안(2.6%), 한국(1.1%) 등에 대한 수출은 늘어났으나 러시아(-35.2%), 브라질(-21.5%) 등에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수입증가율은 2014년(0.5%)에 비해 크게 하락한 -14.2%를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6천816억 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러시아(-20.3%), 인도(-18.4%), 브라질(-14.6%) 등의 수입 감소폭이 컸다.

2015년 전체 교역액은 3조9천569억 달러로 2014년 대비 8.0%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증가해 연간 5천9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2천608억 달러), EU(1천470억 달러), 아세안(909억 달러) 등에서의 흑자규모가 컸던 반면 대만(984억 달러), 한국(732억 달러) 등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2015년 총통화(M2) 증가율은 13.3%로 연간 목표치(12%)를 상회했으며 2014년 증가율(12.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위안화 신규대출은 11조7천99억 위안으로 2014년 9조7천815억 위안에 비해 19.7% 증가한 반면, 사회용자 증가액은 15조4천63억 위안으로 2014년 16조4천134억 위안에 비해 6.1%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연간 목표치(3%)를 하회했으며 2014년(2.0%)에 비해 상승 폭도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식품(2.3%), 의복(2.7%) 등의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가정용품(1.0%),

주거(0.7%) 등은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5.2%를 기록하며 4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가격은 전국 100대도시 분양주택 기준 주택가격상승률(4.2%)이 2014년(-2.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분양주택 가격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70대 도시 중 2014년 대비 상승한 도시의 수는 39개, 하락은 27개, 보합은 4개를 기록했다.

주가(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15년 말 현재 3천539.2로 2014년 말(3천234.7) 대비로는 9.4% 상승하였으나 연중 최고점은 5천166.4, 최저점은 2천927.3로 그 차이가 2천239.1에 이르는 등 변동성이 컸다.

위안화는 2015년 말 현재 미 달러당 6.494위안으로 2014년 말(6.119위안) 대비 6.1% 절하됐다.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등에 따른 자본유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4년(1천285억 달러) 대비 1.7% 감소한 1천2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1.1%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2014년 대비 8.9% 증가했다. 대외직접투자(ODI)는 1천180억 달러로 2014년(1천299억 달러) 대비 14.7%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2015년 말 현재 3조3천304억 달러로 2014년 말(3조8천430억 달러) 대비 5천126억 달러 감소했다.

■ 중국을 제외한 BRICs

중국을 제외한 BRICs국가들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중국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내외 수요가 감소하며 2014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별로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브라질은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2014년(0.1%)보다 크게 낮은 -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다 저유가로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4년(0.7%)보다 낮은 -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인도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7%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3.0	0.1	-1.1	-0.7	-3.8 ¹⁾	-2.0	-3.0	-4.5	..
러시아	1.3	0.7	0.9	0.4	-3.7 ¹⁾	-2.2	-4.6	-4.1	..
인도	5.6	6.6	8.3	6.6	7.2	6.7	7.6	7.7	7.3

주 : 1) IMF 발표치(2016년 1월)
자료 : 브라질 및 인도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IMF

수출 추이를 국별로 보면 원유, 비철금속 등의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등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브라질 및 러시아는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또한 인도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0.2	-7.0	0.0	-20.2	-15.1	-13.7	-15.4	-20.5	-9.4
러시아	-0.8	-4.9	-4.0	-16.5	-31.6	-27.2	-31.1	-37.6	-30.4
인도	6.0	2.6	1.4	0.6	-17.4	-15.4	-16.8	-18.7	-18.9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브라질 및 인도 상공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둔화, 국제원자재가격 하향 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각국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은 공공요금 인상,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교통비 및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연초의 7%대에서 연말에는 10%대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15% 내외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다가 연말에는 식료품가격을 중심으로 12%대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다.

한편, 원유수입국인 인도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연중 4% 내외의 안정된 물가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연말에 물가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6.2	6.3	6.6	6.5	9.0	7.7	8.5	9.5	10.4
러시아	6.8	7.8	7.7	9.6	15.5	16.2	15.8	15.7	14.5
인도	9.9	6.6	6.7	4.1	4.9	5.3	5.1	3.9	5.3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인도 노동부

■ ASEAN 5개국

ASEAN 5개국은 태국과 베트남의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2014년에 비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추이를 국별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내수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2014년(5.0%)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수출이 부진한 데다 2014년 2분기 이후 물가 오름세 소폭 확대,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내수도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2014년(6.0%)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2014년 2분기 이후 낮은 물가오름세,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2014년(6.1%)보다 낮은 5%대 후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태국은 수출 부진 심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 증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

률이 2%대 후반으로 2014년(0.9%)보다 높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수출이 휴대폰 및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2014년(6.0%)보다 높아진 6%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5.6	5.0	5.0	5.0	4.8	4.7	4.7	4.7	5.0
말레이시아	4.7	6.0	5.6	5.7	5.0	5.6	4.9	4.7	4.5
필리핀	7.1	6.1	5.5	6.6	5.8	5.0	5.8	6.1	6.3
태국	2.8	0.8	0.9	2.1	2.8	3.0	2.7	2.9	2.8
베트남	5.4	6.0	6.1	7.0	6.7	6.1	6.5	6.8	6.8

자료 : 각국 통계청

수출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해외수요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2014년에 이어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3.9	-3.6	2.3	-11	-14.6	-11.8	-11.7	-16.2	-18.8
말레이시아	-0.8	2.8	3.1	-5.1	-14.8	-12.2	-14.9	-17.8	-14.2
필리핀	8.8	9.5	12.6	5.7	-5.6	-0.2	-8.3	-8.1	-5.0
태국	-0.3	-0.4	-1.8	1.6	-5.8	-4.7	-5.0	-5.3	-8.1
베트남	15.3	13.7	13.0	11.6	7.9	9.0	9.3	9.4	4.4

자료 : 각국 통계청, 태국 중앙은행

소비자물가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연말에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및 식료품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4년과 같은 6.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말레이시아는 물품 및 서비스세(GST) 도입(4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물가오름세가 확대됐으나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은 식료품가격 안정과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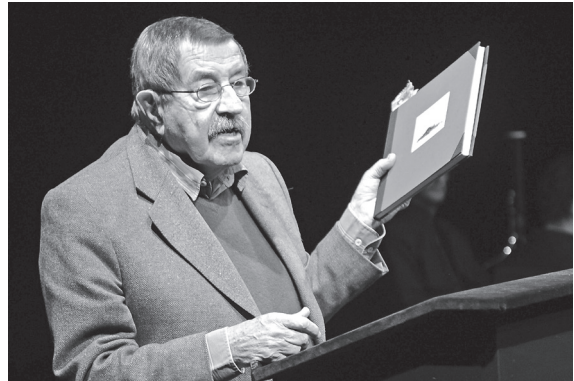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6.4	6.4	4.4	6.5	6.4	6.5	7.1	7.1	4.8
말레이시아	2.1	3.1	3.0	2.8	2.1	0.7	2.2	3.0	2.6
필리핀	2.9	4.2	4.7	3.6	1.4	2.4	1.7	0.6	1.0
태국	2.2	1.9	2.0	1.1	-0.9	-0.5	-1.1	-1.1	-0.9
베트남	6.6	4.1	4.3	2.6	0.6	0.7	1.0	0.5	0.3

자료 : 각국 통계청, 태국 상공부

세계 문화 문학

■ ‘양철북’ 노벨상 작가 귄터 그라스 별세

‘양철북’으로 199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귄터 그라스가 2015년 4월 13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 독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가 4월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사진은 2012년 10월 19일 독일 괴팅겐 도이치극장에서 열린 시집 낭독회에서 자신의 새 시집 ‘하루살이(Eintagsfliegen)’를 들어 보이고 있는 귄터 그라스.

1927년 지금은 폴란드 그다니스크로 불리는 단치히에서 태어난 그라스는 독일의 전후 세대 문학 조류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1959년 ‘양철북’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반열에 올랐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독일의 일그러진 역사를 주인공인 난쟁이 ‘오스카 마체라트’의 시점으로 그린 이 작품은 전쟁과 전후 시대를 회상한 자서전적 장면이다. 1979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져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 역사에 대한 직시와 반성을 촉구하고 진보적 평화운동에 헌신했으나, 17세 때 나치군에 들어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력을 뒤늦게 고백해 위선자라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단치히 3부작으로 불리는 ‘양철북’과 ‘고양이와 쥐’(1961년), ‘개들의 시절’(1963년) 외에 ‘넙치’(1979년)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 ‘앵무새 죽이기’ 후속작 ‘파수꾼’, 55년 만에 출간

미국의 국민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후속작인 ‘파수꾼’(Go Set a Watchman)이 2015년 7월 14일 출간됐다.

‘앵무새 죽이기’로 풀리처상을 받은 작가 Harper Lee가 1950년대에 쓴 작품으로 ‘앵무새 죽이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을 다룬 ‘앵무새 죽이기’의 20여 년 뒤인 1950년대를 다뤘다.